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북한여성사회연구 국제학술회의>
“북한의 변화 : 여성, 시장화 그리고 문화”

인 사 말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손봉숙입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의 여성, 시장화, 그리고 문화”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호주, 폴란드, 일본으로부터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발표와 사회와 토론을 맡아 오늘 이 학술회의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모든 참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열열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세계적인 코비드 펜데믹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계인의 지혜와 해안을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 내년에는 서울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30년 전인 1990년 정치영역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된 한국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연구소를 창립할 당시 한국 의회권력의 98%가 남성의 것이었습니다. 여성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별개로 존재했습니다. ‘여성과 정치’를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소는 지난 30년 동안 여성정책 및 북한여성연구를 필두로 여성정치인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성후보자를 위한 캠페인스쿨에서부터, 차세대여성지도자교육, 국회여성보좌진양성교육 등을 시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친 분들이 다양한 정책결정영역으로 진출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여성, 이주여성, 탈북여성 등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치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차별철폐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내 여성연대 활동만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간의 국제교류와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1992년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와 공동으로 13개국 여성최고 정치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여성정치 지도자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여성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우리 연구소는 여성단체와 함께 동수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동수규범을 신설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연구소는 한국 최초의 여성의제정당인 <여성의당> 창당을 주도했습니다. 여성의제와 여성주의를 표방한 한국 최초의 여성정당을 단 38일만에 온라인상으로 만명의 당원을 모집하여 올해 2020년 3월 8일에 창당하고,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 후보를 냈습니다. 비록 당선자를 내지는 못했지만 2년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 김은주 소장이 여성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거쳐 현재 여성의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난 30년간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여성영역”과 “정치영역”사이에 and라는 bridge를 놓아 “여성과 정치”를 하나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감히 자부해봅니다.

우리 연구소는 1990년 설립 당시부터 북한여성문제에 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1991년 <북한의 여성생활>이라는 제목의 북한여성실태 연구서적 발간을 시

작으로 1992년에는 <북여성연구회>를, 2010년에는 <평화하나 여성 둘> 포럼을 발족하여 남.북한 여성들이 만남과 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또한, 남한여성과 탈북여성들이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를 함께 공부하는 ‘민주주의 칼리지’ 교육 프로그램을 8년간 운영하면서 탈북여성들의 민주주의 역량을 키우고, 남북여성들간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구술로 본 북한 여성의 삶> 시리즈 연구도 6년 걸쳐 진행했습니다. 탈북여성들의 생애사 구술을 통해 북한 여성의 삶을 조명하고, 북한 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삶에 대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갔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이처럼 지난 30년간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북한여성문제에 관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하고, 토론하고 교육활동을 펼쳐온 연장선상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내외 참가자 여러분

오늘의 북한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속도와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가 바로 “시장화”입니다. 시장화를 통하여 북한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북한 사회 변화의 커다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운 이때 북한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오늘 우리의 시도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국내외 학자들의 북한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오늘 이 회의가 북한사회에 대한 여성주의 시각의 새로운 연구와 제안이 풍성하게 쏟아지는 권위있는 학술회의로 자리잡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북한여성사회연구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